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6, pp.51-98
<https://doi.org/10.29212/mh.2020..116.5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개화기 윤치호의 군사문제에 관한 이해

강명숙*

1. 머리말
2. 국가 독립과 군사력에 관한 이해
3. 군사개혁에 관한 이해
 - 가. 일본 군사개혁에 관한 긍정적 이해
 - 나. 조선왕조의 군사개혁에 관한 비판적 이해
4. 침략전쟁에 관한 이해
 - 가. 청일전쟁에 관한 이해
 - 나. 러일전쟁에 관한 이해
5. 맺음말

1. 머리말

윤치호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윤치호가 미국 유학이후

* 자유기고가

귀국하여 활발한 개혁활동을 전개하였으나 '105인 사건' 이후 소극적 종교 활동과 교육 활동에 종사하다가 1938년 이후 변절하여 친일파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윤치호가 일제 말 친일파가 된 이유를 살피는 과정에서 등장한 중심 논의는 기독교¹⁾와 사회진화론²⁾이었다. 그의 개혁사상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신봉하는 기독교를 믿었기에 제국주의적 성격을 극복할 수 없었고, 제국주의 이론인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였기에 힘의 논리에 매몰되어 미약한 조선의 독립을 유보하고, 선진 제국주의를 받아들이는 근대화를 도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치호의 사상은 원천적으로 제국주의적이며 친일은 그의 사상적 귀결이라 보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1910년 이전 개화기 윤치호는 제국주의 침입에 저항하는 개혁활동을 전개하였다. 단순히 기독교 신봉자이고 사회진화론자여서 독립을 유보했다는 이 시기에 관한 논의는 재고되어야 한다.

제3세계의 국가가 독립을 지키려면 제국주의의 침략을 극복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근

1) 유영렬, 『開化期 尹致昊 研究』, 고려대박사학위논문, 1985; 이희환, 『尹致昊의 開化思想 研究』, 檀國大 석사학위논문, 1983; 양현혜, 『윤치호와 김교신: 근대 조선에 있어서 민족적 아이덴티티와 기독교』, 한울, 1994; 유불란, 『"우연한 독립"의 부정에서 문명화의 모순된 긍정으로: 윤치호의 사례』, 『정치사상연구』 19-1, 한국정치사상학회, 2013; 김도형, 『한말 일제하 기독교 지식인 윤치호(1865~1945)의 '文明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2) 유영렬, 芻言: 『정용화, 문명개화론의 뒷: 『윤치호일기』를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41-4, 韓國國際政治學會, 2001; 우정렬, 『윤치호 문명개화론의 심리(心理)와 논리(論理): 근대 자유주의 수용과 노예로의 길』, 『역사와사회』 통권33, 국제문화학회, 2004; 정용화, 『근대적 개인의 형성과 민족: 일제하 한국자유주의의 두 유형』, 『한국정치학회보』 40-1, 2006, 한국정치학회; 박정심, 『한국 근대지식인의 '근대성' 인식. 1. 문명-인종-민족담론을 중심으로』, 『東洋哲學研究』 52, 2007, 東洋哲學研究會; 김경일, 『문명론과 인종주의, 아시아 연대론: 유길준과 윤치호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통권78, 한국사회사학회, 2008; 우남숙, 『미국 사회진화론과 한국 근대: 윤치호의 영향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11-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2; 육연옥, 『윤치호와 양계초의 교육사상 비교: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대적 군사력의 강화는 조선 국왕의 안위와도 연관되어서 어느 세력보다도 조선왕조가 앞장서서 추진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왕조의 군사 개혁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개화파의 과제이자 목표였을 것이다.

윤치호는 국가의 근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개혁가이므로 당연히 군사개혁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일기 여러 곳에 군사문제에 관한 생각들을 기술해 놓았다. 이에 그의 일기에 산재하는 군사개혁에 관한 기술들을 모아 윤치호의 군사문제에 관한 이해를 살펴보려 한다. 국가의 독립을 위해 조선왕조가 추구하던 군사개혁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원하려 했는지를 살펴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 중에는 윤치호의 군사문제에 관한 이해나 구상을 다룬 글은 거의 없다. 윤치호의 일본에 관한 이해를 다루는 글에서 일본인의 상무정신을 장점으로 보았다는 짤막한 논의³⁾가 있을 뿐이다. 독립협회에 관한 연구 중에도 군사개혁에 관한 논의는⁴⁾ 극소수이다. 그러나 이들 글에서 다룬 자료들은 그 생산시기가 윤치호의 활동기간과 다르고 윤치호가 활동한 시기에도 논설이나 성명미상의 글들이어서 윤치호의 군사문제에 관한 이해나 구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외에는 개화파 박영효의 건백서에 나타난 부국강병론을 살핀 글⁵⁾이 있어 개화파의 군사문제에 대한 관심의 범주는 부분적으로 그려 볼 수 있다.

이 글은 개화기 윤치호의 사상을 살피는 것이므로 개화기에 해당하는 1883년부터 1906년까지의 일기를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다.⁶⁾

3) 박지향, 『꽃과 칼을 동시에 사랑한 민족: 윤치호가 본 일본』, 그린비, 2010, 68쪽

4) 김운태, 「한말 1890년대 말 근대화 민중운동: 근대화 자강개혁을 중심으로」,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38, 1999.

5) 김현철, 「박영효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국정개혁에 관한 건백서」에 나타난 부국강병론」, 『군사』 34, 국방부군사연구소, 1997.

6) 윤치호의 일기는 1883년부터 1943년까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907년부터 1915년까지 일기는 비어있다. 이 중 1907년부터 1912년까지 일기는 윤치호

일기 이외에는 윤치호가 기록한 서간집⁷⁾과 일제시기 개화기를 회상하는 신문이나 잡지의 글들이 있는데 이들에서는 군사문제에 관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

2. 국가 독립과 군사력에 관한 이해

제국주의시대 제3세계는 군사력이 있어야 제국주의 침입을 막고 근대화를 이룰 수 있기에 군사력에 대한 윤치호의 이해는 근대적 개혁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게다가 윤치호의 군사문제에 대한 이해는 그가 무관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다. 윤치호의 아버지 윤응렬은 제2차 수신사의 별군관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의 군사제도를 둘러보았으며, 귀국하여 별기군 창설에 참여하였고, 별기군 훈련에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임오군란을 피해 일본으로 피신하였던 윤응렬은 귀국하여 함남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윤응렬은 함남 병영에서 500명 정도의 신식 군인을 키웠고 이 군인들은 1884년 5월 ‘친군 전영’과 통합되었다.⁸⁾ 윤응렬은 갑신정변에 연루되어 유배당했다가 복귀한 1895년에도 경상도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었으며, 1898년과 1903년에는 군부대신으로 재직하여 조선의 군사문제를 다루는 최고위직에 있었다.⁹⁾ 윤치호는 가족적으로도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군사적 근대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가 기록하였으나 일제가 105인 사건으로 윤치호를 조사하면서 압수하고 돌려주지 않아 행방을 모른다. 1912년부터 1915년까지 일기는 감옥살이로 기록하지 않았다.

7) 윤치호 지음, 윤경남 옮김, 『(국역) 佐翁 윤치호 서한집』, 호산문화, 1995.

8) 심현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72-74쪽; 111쪽

9) 김도형, 앞글, 51-52쪽

먼저 살펴볼 문제는 윤치호의 일본 유학이다. 윤치호의 일본 유학은 별기군 훈련에 참여한 윤웅렬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학 시기는 유영렬은 1882년부터, 이광린은 1881년부터 도진샤(同人社)에 다닌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그런데 윤치호 자신은 처음 군사학교로 유학했다고 기술하였다. 윤치호는 김옥균을 믿을 수 없어 갑신정변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김옥균을 믿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유학 초기 군사학교에 다녔다고 기술하였다.¹¹⁾ 군사학교에 다녔다는 또 다른 기술은 1919년 삼일운동 때 조선군 사령관 우쓰노미야타로(宇都宮太郎)를 방문한 때였다. 윤치호는 일본 군인과 경찰들이 조선인 만세시위자들을 폭도로 다루는 것에 항의하려 조선군 사령관을 찾아갔다. 그런데 사령관 우쓰노미야가 군사학교 학생이었던 윤치호를 기억했다는 것이다. 윤치호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조선인을 학대하는 조선군 사령관에 대한 아쉬움을 금치 못 하였다.¹²⁾ 이로 볼 때 윤치호의 일본 유학은 별기군 창설에 참여한 윤웅렬이 별기군 교관 양성 프로그램에 아들을 참가시켜 군사학교에 보낸 것을 시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윤치호는 군사학교를 그만두고 1881년 7월부터 도진샤에서 일본어를 공부하였다. 윤치호는 군사학교를 그만두었지만 군사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않았으며 사건이 일어나거나 생각날 때마다 제국주의 침략을 막아내려면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

10) 유영렬, 앞 글, 1985, 137쪽; 이광린, 「윤치호의 일본유학」, 『동방학지』 59, 연대국학연구원, 1988, 172-173쪽; 김기주, 「개항기 조선정부의 대일유학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29,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125쪽

11) 「1884년 혁명은 잘못된 지도자 아래 있었던 열혈 청년들의 조급한 행동이었다. 내가 군사학교에 있는 동안 도쿄에서 김옥균이 어떻게 사는지 보았기에 나는 그를 결코 믿지 않는다.」 『윤치호 일기』, 1893. 10. 31.(밑줄은 연구자가 친 것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12) 「조선군 사령관 우쓰노미야(宇都宮太郎)장군을 방문했다. -중략- 장군은 내가 군사학교에 재학 중일 때인 1881년 도쿄에서 나를 만났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윤치호 일기』, 1919. 4. 16. (밑줄은 연구자가 친 것임)

유학을 마쳤으나 귀국하지 못하고 중서서원 교사로 있을 때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그해 말기부터 귀국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윤치호는 귀국 이후 할 일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 생각들을 정리하여 『노스 차이나 데일리 뉴스』에 기고하였는데 내용을 요약한 일기문의 한 대목은 아래와 같다.

“오가는 생각들(『노스차이나 데일리 뉴스』에 기고했다.)1. 마라톤(Marathon) 전투와 살레니(Salaenis; 살레니가 아니고 살라미스(Salamis) 해전으로 추정 - 연구자) 전투는 그리스의 독립을 보존시켰다. 사라센의 유럽 정복은 찰스 마르텔(Charles Martel-샤를르 마르텔; 연구자)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것들은 역사의 주요한 분기점이었다.” 『윤치호 일기』, 1894. 9. 27.

윤치호는 페르시아 전쟁 중 마라톤과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가 승리하였기에 그리스 발전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였고, 중세 유럽에서도 프랑크 왕국의 샤를르 마르텔이 사라센의 우마미야 왕조를 격퇴했기에 유럽 발전이 가능했다고 보았다. 윤치호는 역사적으로 외부의 침입을 성공적으로 방어해야만 국가를 지킬 수 있고 개혁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윤치호는 한국도 근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국주의 침입을 막아 독립해야 하며, 그를 위해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국가는 군사력을 키우고 국민들이 근대화에 매진하면 근대화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윤치호는 제국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군사력의 양성을 근대화의 기본으로 생각하였는데 문제는 그것을 주도해야 하는 국왕이 문제였다. 조선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군대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조선의 국왕인데 주인공인 국왕의 결단력과 실천력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윤치호의 고민이었다.¹³⁾

윤치호는 국정개혁에서도 군사문제를 중시하였다. 중서서원에서 같이 공부한 일본인 친구 나가미(永見)가 귀국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에도 조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군사력과 신문발행 그리고 근대적인 교육이라 하였다.¹⁴⁾ 제국주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군사력을 근대국가의 첫 번째 조건으로 본 것이다. 이런 생각은 귀국에 대한 희망이 생긴 9월에도 반복되었다. 윤치호는 귀국을 앞두고 조선 개혁의 10개 항목을 일기에 적었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을 궁내부 개혁 즉 왕실 개혁이고 두 번째로 할 일이 군사력 양성이라고 하였다.¹⁵⁾

군사력을 중시한 예는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로 가는 길에도 있었다. 일본의 위협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한 고종은 왕실의 안녕을 위해 러시아의 지원을 얻고자 민영환을 러시아에 파견하였다. ‘춘생문 사건’(1895. 11. 28)으로 숨어있던 윤치호는 신변이 안정되자¹⁶⁾ 러시아 사행을 제의하였으며 이후 민영환을 수행하여 러시아로 갔다. 윤치호는 러시아로 가는 길에 일본에서 의화군을 만나고 일본의 군사제도와 군사력에 대해 알아보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질

13) “좋은 개혁일지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잘 규율되고 훈련된 군대 없이 조선에서 그 개혁이 수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도 왕을 제외하고는 충성스런 군대를 조직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이 훌륭한 군대를 양성할 수 없고 국왕은 허약하고 우유부단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개혁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윤치호 일기』, 1894. 8. 15.

14) “조선이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효율적인 군대, 애국적인 신문, 철저한 교육 체제이다.” 『윤치호 일기』, 1894. 8. 24.

15) “내가 기회를 갖는다면 조선의 개혁은 다음과 같은 계획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왕실의 비용은 품위와 안락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감축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내시와 궁녀들은 해고되어야 한다. 2. 작은 규모의 규율 잡힌 군대가 지체 없이 조직되어 신정부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윤치호 일기』, 1894. 9. 28.

16) 『윤치호 일기』, 1896. 1. 24: 1. 26.

문을 하였다.¹⁷⁾ 윤치호는 군사력 부족으로 부왕(父王)의 안위마저 위태로운 나라의 왕자가 일본의 군사력에 무관심한 것을 책망하려던 것이다. 윤치호는 최소한의 안위도 감당하지 못하는 국가의 군사력에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일본의 앞선 군사력에 관심 없는 왕자에게도 실망하였던 것이다.

윤치호는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외교의 부질없음도 질타하였다. 윤치호는 을사늑약 직후 일어난 외교적 국권회복 운동을 부질없는 행동이라 하였다. 윤치호는 2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의 희생, 그리고 많은 전비를 들여 러일전쟁을 치루며 얻은 조선 침략의 기회를 조선인들이 주장하는 몇 장의 외교적 호소문 때문에 일본이 버릴 것으로 보지 않았다. 외세의 호의로 국가의 독립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 것이다. 국가가 독립하려면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하며, 군사력을 보유하려면 “훌륭한 정부”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¹⁸⁾

이로 볼 때 윤치호는 근대 국가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수적이라 생각하였고 제국주의 침략을 방어해야만 근대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만약 제국주의의 침입을 막아낸다면 일본에서 근대화가 가능했던 것처럼 조선에서도 근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¹⁹⁾ 윤치호는 군사력을 키워 제국주의의 침략을 물리친다

17) “9시에 우리 공사관으로 돌아가면서 나 혼자 의화군을 찾아갔다. (중략) “왜 저하는 일본어와 일본의 군사체제를 배우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대답했다. “나는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소. 나는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지 몰라 늘 두려워하고 있소.” 『윤치호 일기』, 1896. 4. 17.

18) 『윤치호 일기』, 1905. 11. 27.

19) “현재의 전쟁은 서방의 제창조적인 문명과 동양의 퇴락해 가는 야만주의 사이의 전쟁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성공은 조선의 구제와 중국의 개혁을 의미할 것이다. 그 반대라면 만도의 왕국은 중국의 타락이라고 하는 밑바닥 없는 땅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고, 중국은 제국이 아무런 혁신도 필요 없다고 하는 믿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동양 전체를 위해 일본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윤치호 일기』, 1894. 9. 27.

면 조선의 근대화는 자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윤치호는 국가의 독립과 근대화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독립을 위한 군사력 양성을 개혁의 제1 과제로 여기고 있었다.

3. 군사개혁에 관한 이해

가. 일본 군사개혁에 관한 긍정적 이해

일본어 교육을 어느 정도 마친 윤치호는 1882년 6월부터 자유로운 신분으로 일본에 머물면서 김옥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²⁰⁾ 1883년 1월 김옥균과 함께 오자와를 방문하여 일본 군사제도에 관해 들었다. 윤치호는 오자와의 설명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날 오전에 고우장(古愚丈:김옥균)과 같이 가미즈키(上月)를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다시 오자와(小澤)를 방문하다. 인사를 나눈 뒤 고우장이 물었다. “지금 귀국의 병대는 모두 얼마나 되는가.” 오자와(小澤)가 대답하기를, “상비(常備)·예비(豫備)·후비(後備)를 합하여 10만 명 가량이나, 상비병은 4만이다”고 하였다.

고우장이 물었다. “귀국 병제는 대개 어느 나라의 제도를 본땀는가?” 오자와가 대답하기를, “유신 이전에 여러 번(藩) 중 삿슈(薩州)는 영국의 병제를, 기슈(紀州)는 독일의 병제를, 막부(幕府)는 불란서의 병제를 채용하였다. 그 밖의 허다한 번(藩)들이 각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바에 따라 임입되었기 때문에 제도가 한결같지 않았다.

명치정부(明治政府)에서도 육군에서는 불란서의 병제를, 해군에서는 영국의 병제를 채용했다. 지금에 와서는 널리 각국 병제를 모아서 편리하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일본군제(日

20) 이광린, 「윤치호의 일본유학」, 『동방학지』 59, 연대 국학연구원, 1988, 177-180쪽

本軍制)라고 부를 만하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병대(兵隊)의 훈련 등은 각국이 모두 대동소이하지만 양병(養兵)하는 정신은 크게 차이가 있다. 전일에는 불란서군(佛蘭西軍)의 정신이 심히 정예로웠으나 지금은 자못 무디어졌고, 독일군(獨逸軍)은 지금 정신이 심히 날카로운데 그것은 무력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또한 일본 병대가 독일군의 정신을 배우게 되길 원한다”고 하였다. 고우장이 “과연 그러하겠다”고 하였다. 『윤치호 일기』, 1883. 1. 3.

기록한 내용으로 볼 때 윤치호는 일본이 받아들인 서구의 군사제도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것으로 생각하였다. 세계를 주름잡는 영국의 군제는 나가사키 근처에 위치한 사쓰마 번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았고, 도쿄에 위치한 막부와 주변의 기슈 번은 육군을 중시하여 각각 프랑스와 독일 병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았다. 당시 일본군은 프랑스의 군인정신보다 독일군의 정신을 중시하였는데 그 이유를 1871년 독일이 프랑스에 승리하여 독일을 통일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군사부분에 관한 윤치호의 이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런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할 만큼의 이해력은 가지고 있었다할 것이다.

윤치호는 지역의 번주들이 군사력 증강을 위해 일찍부터 유럽의 군사제도를 받아들였음을 주목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의 봉건 번주들은 세계 여러 곳에 식민지를 건설한 영국의 군사제도, 프랑스 혁명 당시 대불동맹을 분쇄한 나폴레옹의 군사제도 그리고 프랑스 군대를 제압하고 조국을 통일한 독일 군사제도 등 우수한 군사제도를 다투어 수용했음을 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투력을 보인 군사제도들을 일본의 봉건 번주들이 수용하여 실험함으로써 일본 군사제도 속에 주요한 경험으로 자리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일본은 각국 군사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육군은 독일의 군사제도를 해

군은 영국의 제도를 이용하여 근대적 일본군대를 형성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일본의 군사력은 윤치호가 유학하던 시기 이미 자신들에게 맞는 군사제도와 작전력을 형성하였다고 본 것이다.

윤치호는 일본의 무사정신이 군사제도 형성에 미친 영향도 중시하였다.

“1. 한 ‘민족(nation)’으로서 조선인들은 미래가 없다. 그들의 기질에서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요소는 단 하나도 없다. 그들이 중국인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다! 그들은 일본인과 같은 무사도(武士道) 정신과 민족적 명예심으로 충만한가? 아니다! 비록 더럽더라도 그들은 중국인들처럼 부지런한가? 아니다! 비록 게으르지만 그들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처럼 용맹한가? 아니다! 그들은 비록 교활하다 해도 기민하고 상술에 밝은가? 아니다! 비록 단순하다 해도 그들은 솔직하고 마음이 열려 있나?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야만인에게 더 나은 점—두려움 없음과 호전적 정신과 같은—조차도 없는 야만인이다.” 『윤치호 일기』, 1894. 11. 1.

위의 인용문은 청일전쟁 중반 일본의 승리가 굳어지던 시기 한국인을 중국인 일본인 인디언 그리고 아프리카인들과 비교한 글이다. 윤치호는 중국인은 더럽지만 인내심이 많고 근면하며 상술에 밝다고 보았다. 유럽인들에게 정복되어 모든 것을 빼앗긴 인디언마저 용맹했다고 보았는데 한국인들은 그것마저 없다고 한탄하였다. 조선인은 유교의 지배 속에서 기본적인 인간성도 상실한 반면 일본은 무사도를 기반으로 호전적 정신을 갖추고 군사력을 키워 청나라를 물리치고 조선을 침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았다. 호전적 무사정신이 일본의 조선 침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여긴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무사들이 사회의 중심이었기에 무사들의 호전성을 불교나 유교 또는 신도(神道) 등이 종교적 신조로 강조

하면서 문약의 폐해를 극복했고 보았다.²¹⁾ 바꾸어 말하면 무사중심 사회가 종교마저 무사의 호전성을 종교적 덕목으로 가르쳤기에 일본 사회가 명예를 중시하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윤치호는 일본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무사들의 상무정신이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었고 무사도를 종교 정신으로 승화시켜 전투적 용맹성을 추구하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전통적 무사정신이 제국주의 침입을 막고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사회의 정신적 토대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칼과 목욕문화라 하였다.²²⁾ 청국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게 만든 것이 일본 무사들의 상무정신이며 나아가 근대화의 원동력이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윤치호는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것은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지만 그보다 일본인들의 노력이 서양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용한 덕분이라 보았다.

“2.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들 덕에 오늘의 일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서양인들은 그들이 선생으로서 어디를 가든 간에 자신의 의무를 가장 정직하고 성실히 수행한다는 것이 그들의 영원한 명예라고 한다. 그러나 선생의 성공 여부는 주로 가르치는 능력과 가르치는 열성에 달려 있다. 아무리 가르치는 사람이 충실하려고 할지라도 일본 국민들의 놀라운 애국심, 기사도와 같은 명예심, 기민한 지성, 높은 야망, 그리고 과감한 용기가 없었다면 일본인들이 30년도 안 되는 기간에 그렇게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요구한다고 되

21) “일본은 행복하다! 일본의 봉건적 경쟁과 칼 때문에 불교, 유교, 신도 등 일본의 종교는 일본을 작은 중국이나 인도로 바꾸어 놓지 못하였다. 일본의 종교는 일본의 호전성을 더 단련하여 일본이 극동의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전략하는 것을 막았다.” 『윤치호 일기』, 1900. 12. 18.

22) “생각하면 할수록 칼과 욕조가 일본 문명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신념이 더 확고해진다. 칼은 명예를 빛나게 만들고 욕조는 마음을 깨끗하게 만든다.” 『윤치호 일기』, 1905. 7. 20.

는 것이 아니다. 이런 특징은 오랜 봉건시대를 통하여 생산되고, 간직되고, 성숙되어 온 것이다.” 『윤치호 일기』, 1894. 9. 27.

위의 인용문은 근대화의 성공 조건은 성실하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학생이 올바르게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각 지역의 번(藩)들이 경쟁을 통해 서구 열강의 군제를 채용하고 실험하여 서구 열강 군대의 장단점을 알게 되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윤치호는 각각의 번들이 상무정신을 장려했기 때문에 서구의 군사제도를 수용하려 하였고 각국의 제도를 사용해 봄으로써 각각의 방법을 이해하고 자기에게 알맞은 방법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일본 군사력은 일본인의 경험과 노력에 의해 얻은 것이며 그런 노력을 추진하게 만든 요소는 무사도와 무사전통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무사전통이 일본사회의 애국심, 기사도, 명예심, 기민한 지성, 높은 야망, 그리고 과감한 용기를 키우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윤치호는 전통적 일본사회의 기본 조직인 막부와 번을 움직인 무사들의 상무정신이 제국주의 침입을 막고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게 만든 기반으로 보았다. 윤치호는 근대화에 성공하려면 독립해야 하고 독립하려면 군사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 조선왕조의 군사개혁에 관한 비판적 이해

1) 유교 문치주의의 영향에 대한 비판

문제는 조선의 군사력이었다. 주변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을 막고 개혁하려면 군사력이 필수인데 당시 조선의 군사력은 제국주의 침략을 극복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윤치호는 조선의 군사력이 약화된 이유를 유교의 문치주의 때문이라 생각하였다. 조선 왕조 500

년 동안 유교의 문치주의가 상무정신을 말살하여 군사력이 쇠퇴했다는 것이다. 윤치호는 유교의 폐해를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① “평화란 진실하고 정의로운 원칙 위에 기초한 것이라면 좋은 것이다. 그러나 지배자의 학정과 피지배자의 노예근성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라면, 그런 평화는—그 오랜 불명예스러운 세월 동안 조선과 중국을 멍멍하게 하여 잠자게 한 종류의 평화—비겁함, 반역 행위, 속임, 나약함, 타락—실로, 조선을 뚜렷이 하데스(Hades;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옥)로 만든 모든 악의 근원이다. 나는 조선이나 중국과 같이 반쯤 개화된 나라에서는 전쟁 혹은 전쟁을 좋아하는 것만큼 사내다움과 애국심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은 없다고 본다. 일본을 보라.” 『윤치호 일기』, 1894. 6. 20.

② “유교와 전제주의가 윗돌과 아랫돌이 되어 사람을 짐승 보다 낮게 하는 모든 기질을 그 사이에서 잡아버려 가루로 만들었다.” 『윤치호 일기』, 1894. 11. 1.

위의 인용문들은 청일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기술한 것이다. 인용문 ①에서 윤치호는 청일전쟁에서 싸우는 일본인들의 과감성에 놀라고 있었다. 전쟁 전 국제사회 여론은 일본이 패배할 것으로 보았는데 전쟁이 시작되자 여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본은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구가하였다. 윤치호는 일본인들의 용감성과 사내다움이 국가를 지키려는 애국심으로 나타나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보았다. 반면 평화로운 조선은 비겁, 반역, 속임수, 나약, 타락들이 난무하여 제국주의 침입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윤치호는 잘못된 평화는 펼쳐버릴 것을 주장하였다.

윤치호는 유교의 근본적 폐해는 하나님의 지배(정의와 공의)를 허용하지 않고 백성들의 여론을 용납하지 않아 사회가 전제화되는 것이라 보았다. 그러므로 유교는 백성들의 정의감을 무색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마저 없애버렸다고 본 것이다.²³⁾ 인용문 ②에서는 유교와 유교가 만든 전제주의가 인간성을 갈아버렸다고 극렬하게 비판하였다. 유교 때문에 정의로운 지배가 없어졌으며 그 결과 인간성이 말살되어 애국심이 없어졌고 국가를 지킬 군사력도 기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윤치호는 유교가 인간성을 말살하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제적 폭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보았다.²⁴⁾ 윤치호는 유교가 조선을 폭정으로 몰아 국가를 지킬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 유해한 종교내지 사상으로 인식하였다.

윤치호는 제국주의 침입을 물리치려면 일본과 같이 전투력을 길러야 하고, 전투력을 키우려면 상무정신을 고양해야 한다고 보았고,²⁵⁾ 이를 위해 유교의 문치주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윤치호에게 일본의 군사력은 제국주의 침입을 막아낸 면에서 조선개혁의 모델이었다. 윤치호는 제국주의 침입을 막아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군사적 발전을 조선의 군사적 개혁의 모델로 받아들인 것이다.

23) “3. 외국인 교사들은 그들이 가르치려는 인제가 부족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슬프게도 중국과 조선에서 그들이 직면했던 실패에서 입증되었다. 이런 나라에서는 지배자나 피지배자의 진정한 애국심 결핍이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을 허용하지 않고 정치체제가 백성들의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유교는 어떤 인종이든 자만하게 하고 이기적으로 하고 노예근성을 가지도록 조야하다.” 『윤치호 일기』, 1894. 9. 27.

24) 8. 낮은 자존감, 낮은 야망, 낮은 삶의 이상. 사실 조선에서는 모든 것이 낮다. 조선의 이 낮고 물질만능주의적이고 역겹고 더러운 생활수준은 대부분 유교 때문이다. 9. 억압 탄압 암울함은 조선인의 정치 가정 생활의 초석이다. 10. 유교는 왕을 국가에 군림하는 폭군으로 만들고, 아버지를 가정에 군림하는 폭군으로 만들고, 시어머니를 며느리에게 군림하는 폭군으로 만들고, 남편을 아내에게 군림하는 폭군으로 만들고, 남성을 여성에게 군림하는 폭군으로 만들고, 주인을 하인에게 군림하는 폭군으로 만들어 가정과 국가에서 모든 자유와 기쁨의 정신을 말살했다. 유교는 폭정의 체계라고 불릴 만하다. 『윤치호 일기』, 1904. 5. 27.

25) “5. 5백 년 동안 수치스러운 유교 때문에 군인보다 지식인이 더 존경을 받는다. 따라서 반미개(半未開)한 국가의 전통적 수구적 영향력을 깨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군인정신이다.” 『윤치호 일기』, 1897. 11. 11

2) 외세의 영향에 관한 비판

운요호사건으로 개항한 이후 제국주의 침입에 대항하려는 조선의 군사적 노력은 지속되었다. 왕실 경비를 위해 친위대를 강화했으며, 이어 전통 군대를 개편하고 별기군을 설치하였다. 임오군란 이후에는 청국 군제를 도입하였으며 갑신정변 이후에는 최초의 육군사관학교인 연무공원을 설립하여 미국식 군사제도 도입에도 노력하였다. 갑오개혁기에는 중앙군과 지방군을 정비하였고 아관파천 이후에는 러시아 군사교관단을 통해 러시아 군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후에도 중앙군과 지방군의 정예화를 도모하였으며 특히 평양으로 천도하려던 시기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지방군을 통합하려 하였다.²⁶⁾ 조선의 군사개혁은 왕실 경비와 맞물려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우선 개혁사업으로 인식되었고 또한 추진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독립을 지킬 만한 군사력을 획득하지 못해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특히 주변국들의 침략경쟁이 치열하여 경쟁국들은 중립화론으로 기회포착을 노리고 있었다. 조선의 군사력이 미약한 이유는 근대적 전투에 필요한 근대적 무기를 갖지 못하였고, 근대적 무기의 사용과 작전에 미숙할 뿐 아니라 근대적 무기를 생산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윤치호는 조선 군대의 전투력 부재 원인을 이런 부분에서 찾지 않았다.

① “(4) 인하여 병대에 관한 일을 아뢰기를, “폐일언하고 마땅히 모든 군영을 하나로 통합하여 한 사람이 통솔케 하고 한 교사로 훈련케 한다면, 사병의 마음이 일치되고 기예를 온전히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가령 청국의 기예를 배우고 서양의 기예를 배우더라도 그 귀착점은 한결같이 우리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영(左營)의

26) 심현용, 앞 책, 2005.

병대는 전영(前營)을 비방하고 전영의 병대는 좌영의 병대를 비웃어 서로가 역시(逆視)하여 문득 적대적인 국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보통의 모습이어서 신이 그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와 같을 것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평시에 이와 같으니, 만약 전장(戰場)을 당하면 저들은 반드시 사사로운 원망을 품고 공의(公義)를 버리게 될 것이니, 그러하고도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엿드려 주상의 재가를 바라건대, 모든 군영을 하나로 통합하여 군심(軍心)을 일치토록 하여 뒷날의 국용(國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윤치호 일기』, 1884. 1. 1.

②“지금 좌·우영의 병대는 비단 재주가 없을 뿐 아니라 교만하고 나태하기 짝이 없어 군대를 기르는 의미를 막막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쓸모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인의 위동(威動)을 억누르기 어려워 능히 병대를 혁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러하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듣건대, 위안스카이(袁世凱)도 ‘조선 병대는 교만하고 나태하여 쓸모가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가 이미 병대가 쓸모없음을 알았다면 무슨 까닭에 고집을 부려 혁파하지 않고 한갓 다른 나라 인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을 하지 말라. 위안씨는 조선 병대의 쓸모없음을 말하면서도 근일에 그가 군사수를 늘릴 것을 청했는데 내가 듣지 않았다”고 하셨다. 이에 아뢰어 청하기를, “3영(三營) 병대를 통합하여 1인을 시켜 가르치게 하고, 1인으로 장관을 삼아서 군심(軍心)을 일치케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더니, 상께서 옳다 하셨다.” 『윤치호 일기』, 1884. 1. 18.

인용문 ①과 ②는 윤치호 미국 공사관의 통역과 조선 정부의 관리를 겸임하던 시기 고종에게 건의한 내용이다. 임오군란 이후 청국의 내정간섭이 극심하던 시기 청국 주도로 이루어진 군사개혁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당시 군제는 청국 주도로 새롭게 선발 양성한

친군 좌·우영과 이전 전통 군인들로 재편성되었으나 일본 군사학교 출신 교관이 훈련하는 친군 전영²⁷⁾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조직적으로 대립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병대 배후세력의 다름이 훈련방법의 차이를 낳았으며, 배후세력의 갈등이 군대조직의 통합도 방해한다고 보았다. 윤치호는 이런 갈등과 부조화가 전투력의 부재뿐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을 걱정하였다. 더구나 청국이 키운 친군 좌·우영의 전투력은 형편없어 비난 대상이었는데 청국이 두려워 해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윤치호는 새로운 교관(미국인 교관)이 오는 것을²⁸⁾ 계기로 친군 좌·우·전영을 통합하여 훈련할 것을 건의하였다. 윤치호는 청의 봉건적 군사훈련으로는 근대적 군대 양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고 불성실한 좌우영 군사들을 새로운 통합 훈련으로 쇠신할 것을 희망한 것이다. 군사개혁을 주도한 청국의 봉건성이 조선 군대에 그대로 투영된다고 보고 쇠신을 건의한 것이다.

윤치호는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 때에도 아래와 같이 조선 군대를 비판하였다.

“조선의 지금 사세는 위로 임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아래로 쓸모 없는 사람이 조정에 가득하다. 백성들의 어려움은 물이 말라버린 곳에 있는 고기와 같고 도적의 횡행함이 숲속에서 벌떼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 군대는 있으나 단지 이는 오합(烏合)의 무리이며 재물이 없어 개미독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못하였다.” 『윤치호 일기』, 1885. 6. 20.

영국은 1885년 4월 15일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검하였으나 조선 정부에 정식으로 알린 것은 5월 19일이었다. 그리고 세상에 공론화된 것은 윤치호의 일기로 보아 6월로 보인다. 조선은 외국의 영토

27) 심현용, 앞 책, 2005, 109-112쪽.

28) 『윤치호 일기』, 1884. 1. 18.

침입을 1개월이 넘어서야 겨우 정식으로 통보받은 것이다. 영국은 거문도 점거 이전 중국과 일본에 양해를 구했지만 정작 조선에게는 아무런 사전이해를 구하지 않았다.²⁹⁾ 영국의 이런 행태는 조선을 독립국으로 보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처사인 것이다. 윤치호는 이런 국제적 도발에 분노하였으며 수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국정개혁의 1차적 목표로 추진되던 군대개혁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영토 유린을 전혀 모르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 정부는 때늦은 통보를 받았으나 영국에게 철수를 종용하는 것 이외에 어떤 방법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³⁰⁾ 반면 영국은 조선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군사시설을 만들면서 임대나 매매를 요구하였다. 윤치호는 아무런 군사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조선 군대가 “개미 독”만큼의 군사력도 갖추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더구나 청국의 종주권을 지원하던 영국이 조선 영토를 유린하고 청국이 나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조선 군대의 무력감을 더욱 실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군사개혁은 갑오개혁기에도 개혁의 주도권을 일본에게 빼앗겨 전투력의 강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윤치호도 참여한 정권에서 일어난 개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하였다.

“일일예비비 대부분을 허비한 4,000명의 병사(?) 또는 공병(工兵)은 가슴 속에 있는 뱀이나 다름없다. 조정과 궁중은 병사의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것이다.” 『윤치호 일기』, 1895. 8. 21.

위의 인용문은 갑오 개혁과정에서 훈련대에 편입되지 못한 대규

29) 한승훈, 「19세기 후반 조선의 대영정책연구(1874-1895): 조선의 군세정책과 영국의 간섭정책의 관계점검과 균열」, 고대 박사학위논문, 2015, 140-149쪽.

30) 한승훈, 앞글, 140-183쪽

모 인원(5200여 명)을 공병과 마병대와 치중병대로 나누어 신설대로 편성한 것을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전투부대(제3훈련대까지 편성, 1개 훈련대는 1,600명 정도로 구성) 인원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인원을 지원부대로 편성한 것³¹⁾에 대한 비판이었다. 일본이 주도한 군사개혁에서 전투부대와 지원부대의 인원이 거의 동수가 된 것인데 이것은 전투부대의 인원을 줄이고 지원부대에 인원을 과다하게 배정한 것이다. 윤치호는 조선의 군사개혁은 전투력의 강화가 우선인데 일본은 자국의 필요를 위해 조선 군사의 거의 절반을 지원부대로 편성한 것이다. 윤치호는 조선의 군사개혁이 일제의 필요에 따라 왜곡되어 군사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쓸데없는 지원부대 양성에 쓰게 되었다고 비판한 것이다. 외세의 간섭으로 조선 군대의 전투력은 저하되고 일본에게 필요한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일본에 이용당하는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이런 왜곡은 아관파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러시아공사관에 기거하던 고종이 환궁(1897. 2. 20.)한 직후에도 조선의 군사력은 강화되지 못하였다. 고종의 안위문제로 경찰과 경비대의 기강과 전투력이 중요한 시기였고 거국적인 필요에 따라 많은 예산을 들여 러시아 교관단을 초청하고 그들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의 강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윤치호는 한마디로 당시 경찰과 군인들이 쓸모없다고 비판하였다.³²⁾ 군대양성이 국가정책의 핵심이지만 군사력의 강화를 외세에 맡겨 예산만 낭비했다고 본 것이다.

이런 군사개혁의 실패는 러시아가 철수한 후 자체적 군사개혁에서도 고쳐지지 않았다.

“지금 서울에는 군인이 만 명 이상 있다. 황제도 예외일 수 없고, 모든

31) 심헌용, 앞 책, 2005, 191-193쪽

32) “4. 경찰과 군인들은 여전히 경솔하고 쓸모없는 존재다.” 『윤치호 일기』, 1897. 2. 22.

사람들이 군인에 대한 죽음의 공포 속에 놓여 있다. 황제의 평양 군인에 대한 현명하지 못한 편견이 평양과 서울 군대 사이의 상호 적대심을 키우고 있다.” 『윤치호 일기』, 1901. 4. 24.

다수의 시정잡배들로 구성되어 기강이 문란한³³⁾ 평양진위대는 국왕의 배려로 한성에 올라와 조련하고 연조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 상을 받으므로³⁴⁾ 사기가 충천하였다. 게다가 평양의 지리적 중요성이 강조되어 진위대 편제를 중앙 친위군 대대와 같이 만들었다.³⁵⁾ 이후 평양군을 평양부로 만들고 진위대 증설을 계획하였을 뿐 아니라³⁶⁾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하여 행궁을 세워고³⁷⁾ 천도를 준비하였다. 황제의 평양진위대에 대한 관심이 훈련이 부족한 평양진위대 군인들을 부추겨 불법을 자행하게 만들었으며 중앙군과 대립하여 군대의 통합도 방해하였다. 황제의 두드러진 편애가 군조직의 부패를 부추기고 통합을 방해한 것이다.

근대적 군사전문가가 없던 조선은 군사개혁을 외세에 의지하였다. 그러나 잦은 외세의 변화와 국내 세력의 갈등으로 근대적 군대를 만들지 못하고 인적 조직적 문제만 양산하였다. 더구나 군대개혁을 주도한 국왕마저 자신의 안위에 급급할 뿐 개혁의 비전이 없어 우왕좌왕하여³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윤치호는 조선은 군대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었지만 비전과 전문성이 없어 제대로 된 훈련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33) 《고종실록》, 1896. 12. 18; 1899. 4. 30.

34) 《고종실록》, 1899. 9. 29; 10. 3; 1901. 11. 9; 11. 30; 12. 1.

35) 《고종실록》, 1899. 10. 12.

36) 《고종실록》, 1900. 9. 4; 9. 18.

37) 《고종실록》, 1902. 5. 6.

38)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바로는 황제는 공격무기와 수비무기로서, 유럽의 소총과 대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수하다고 믿는 화살과 활을 제조하는 데 수십만 달러를 썼고, 분명히 지금도 쓰고 있다.” 『윤치호 일기』, 1902. 12. 4.

그리고 군사개혁을 주도한 외세의 영향력이 국내세력과 연결되어 군대의 통합도 방해함으로써 조직적 통일도 이루지 못했다고 보았다. 결국 외세가 주도한 조선의 군사개혁은 시간 인원 재정을 낭비하여 조선의 근대화를 방해했다고 보았다.

3) 군인들의 기강해이에 관한 비판

더더욱 조선 군대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군인들의 기강해이였는데 기강해이를 주도하는 것은 부패한 국왕과 관료들이었다. 독립협회의 구국상소를 준비하던 윤치호는 국가적 심혈을 기울여 양성한 군대가 외세 침입에는 무능하고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조롱하였다.³⁹⁾ 국왕의 안위를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형성된 러시아 교관단의 훈련으로도 군인들의 전투력 향상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봉건적 부패 관행만 일삼는 공인된 폭력배로 본 것이다. 정권을 장악한 친러파의 부정부패가 군대에도 만연함을 지적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부패한 군대가 평양 진위대였다. 훈련이 부족한 이들은 황제의 편애 속에서 행패를 부리며 가족들마저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고, 심지어 군인들 자신이 밤에는 도둑으로 변할 정도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⁴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편성된 군대가 국가를

39) “박사(서재필-연구자)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처럼 참용성 있게 억압을 견뎌내는지 물었다. 나는 외국의 적에게는 소용없지만 국내의 적에게는 효과적인, 군인들이 주는 일반적인 공포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치호 일기』, 1898. 2. 7.

40) “평양에 있는 군인 숫자는 올해 3,000명으로 늘어났다. 처음에는 400명이었다. 규율이 없기 때문에 군인들은 아주 난폭하게 행동한다. 전직 노동자나 재소자인 군인들은 신발을 신고 감리서나 군수 집무실에 곧장 들어오고, 연회 도중에 무회를 데리고 나간다. 군인들과 그의 친구나 친척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 감히 법이 군인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군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라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군인들이 밤낮으로 경비를 서고 있는 서울에서 사람들은 밤에 감히 돌아다니지 못한다. 군인이 도둑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조선의 다음 전염병은 제멋대로인 군인이 될 것이다.”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괴롭히는 불법적 “도둑”이 된 것을 비판하였다. 황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군대를 만들었으나 제대로 훈련하지 못해 수탈만 조장하였다. 윤치호가 보기에 조선 군대는 국권 수호 조직이 아니라 황제의 권위에 기생하는 또 하나의 부패한 수탈 조직이었다.

윤치호는 군인들이 벌이는 수탈의 내용을 원산 상인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원산 상인 김정님은 아들의 구제국 취직과 퇴직에 9,000냥을 지출하여 파산했다고 하였다.⁴¹⁾ 군대가 관리하는 구제국은 직원이 들고나는 모든 과정에서 수탈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황제도 구제국 수탈에 참가한다고 들었다. 황제가 주도하는 군대 개혁은 근대적 군사력의 획득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수탈의 통로라고 윤치호는 이해하였다.

윤치호가 보기에 더욱 문제되는 것은 백성들이 군인들의 폭력이 무서워 부당한 세금에 항의도 못하는 것이었다. 군인들의 무력이 백성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는 효과적인 폭력 장치가 되었다고 보았다. 개혁의 핵심부분으로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군대가 부패한 권력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전략한 것이다. 군대가 제국주의 침략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정권의 수탈에 참여하여 국민의 개혁 의지마저 저하시키고 개혁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조선 군대는 지속된 개혁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침입에는 무능하고, 왕실과 관리들의 전제적 수탈의 통로가 되었음에 윤치호는 절망하고 분노하였다.⁴²⁾

윤치호는 근대 국가에 있어 군사력 양성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도 군사개혁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잘못된 개혁이 조선 군대를 부패의 소굴로 만들뿐 아니라 개혁자금도 고갈시키고 있었다. 윤치호는 가마를

황제의 치명적인 맹신 덕분이다.” 『윤치호 일기』, 1901. 3. 7.

41) 『윤치호 일기』, 1902. 9. 11.

42) 『윤치호 일기』, 1905. 7. 4.

타고 거드름을 피우고 돌아다니는 군인들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⁴³⁾ 조선 왕조의 군사개혁은 전제적 타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개혁의 명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수탈 방법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윤치호는 근대화의 첫 번째 조건으로 국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의 확립을 생각하였고, 제국주의 시대 외부의 침입을 막아 낼 수 있는 군사력이 없이는 독립도 근대화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조선에서 가장 확실하게 진행되던 군대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황제의 특별한 지원을 받는 군인들은 구제국이나 군인회 등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불법적으로 수탈하고 있었고 황제도 거기에 가담하고 있었다. 조선 군대는 국방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백성을 수탈하고 전제적 정권을 연장하는 국가폭력으로 전락했다고 본 것이다.

4. 침략전쟁에 관한 이해

가. 청일전쟁에 관한 이해

일본 유학시절부터 일본 군사제도를 이해하였던 윤치호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중국에 돌아와 중서서원의 보조교사로 있으면서 청일전쟁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청일전쟁이 시작되기 전 국제 여론은 일본이 패배할 것으로 보았다. 윤치호도 당시 여론에 찬성하였는데 이유는 전쟁 승패는 전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

43) “조선의 관료 집단은 대령과 장군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긋지긋한 음모를 꾸미는 용감한 장군들이 가마를 타고 황급히 여기저기를 다니는 모습을 보면 슬퍼지거나 헛웃음이 나온다.” 『윤치호 일기』, 1904. 10. 20.

가 종합적으로 반영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중서서원의 교장이던 알렌도 일본의 패배를 주장하였다. 알렌은 일본의 민주주의가 단적으로 수준 미달이라 보았다. 사회적 수준을 상징하는 정치 분야에서 근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다른 분야도 그와 비슷하게 제대로 발달되지 못했다고 보았고, 여러 면에서 후진적이기 때문에 일본의 국력으로 청국을 넘어설 수 없다고 본 것이다.⁴⁴⁾

윤치호도 일본군이 패배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유는 일본군의 조선 주둔 경비가 하루에 25,000 달러 정도 소요되는데 앞으로 있을 전면전에 들어갈 비용은 주둔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당시 일본의 무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기에 일본은 전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청국은 전투를 피하고 있어 전쟁의 장기화가 일본의 전쟁 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았다.⁴⁵⁾

전쟁은 시작되었고 전쟁 초반 일본은 전투마다 승리하였다. 일본은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야 하므로 일본 천황의 생일(1894. 11. 3.) 전후 전투를 정리할 것으로 보았다.⁴⁶⁾ 예상대로 일본의 어려움은 가중되었고 전쟁수행을 위해 전비모금에 나서고 있었다. 일본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었으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였다. 더구나 중국의 근대화는 부족해 보이지만 대국이어

44) “1. 일본인들은 정당 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다. “왜냐하면 윤 선생도 알다시피, 영국이 입헌정부를 완성하는데 거의 1천년이 걸렸소. 몇몇 해외에서 공부한 일본인들은 헌법을 이해할 수 있으나 일반 대중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오. 그런 정부는 경험에서 오는 것이오. 그것은 성숙에서 오는 것이지요. 이를 운영할 사람도 없이 지상(紙上)의 헌법이란 아무 쓸모가 없지요.” 『윤치호 일기』, 1894. 6. 25.

45) 『윤치호 일기』, 1894. 7. 30.

46) “4. 일본의 대 계획은 ① 천황의 생일(11월 3일) 이전 조선에서 중국군을 추방하는 것, ② 베이징 점령, ③ 중국 동해안 지역에 상당한 부지의 땅을 획득하는 것.” 『윤치호 일기』, 1894. 9. 20.

서 전쟁배상금을 엄청나게 물어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⁴⁷⁾ 결국 전쟁 초기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 일본의 승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였다.⁴⁸⁾ 윤치호는 전쟁 승리는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국력이 우선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제국주의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국력 신장을 위한 근대화 추진도 제국주의 침략을 극복하는 방법이었다. 윤치호에게 근대화와 독립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며 상호 보완되어야 할 개념이었다. 이면에서 윤치호가 독립을 유보하고 근대화에 매몰되었다는 논의는 재고되어야 한다.

일본의 패배가 여론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윤치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3. 일본인들은 그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따금 누군가가 그들에게 되짜를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 『윤치호 일기』, 1894. 6. 25.

“결국, 이 전쟁으로부터는 러시아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전쟁의 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강이 며칠 안에 개입하여 너무나 신이나 떨어질 줄 모르는 그 싸움꾼들을 떼어 놓을지도 모른다.” 『윤치호 일기』, 1894. 7. 24.

위의 인용문들을 보면 윤치호는 누군가 나타나 청일전쟁의 승패

47) 『윤치호 일기』, 1894. 8. 15; “중국은 매우 큰 괴물이라서 설사 일본이 수도를 약탈하여 각종 금은보화를 실어가거나, 1억불의 배상금을 금화로 지불하기를 강요한다 해도 결코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 『윤치호 일기』, 1894. 8. 18

48) “전쟁 초기 일본이 선수를 잡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 중국의 수적인 우세로 승리한다는 것이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윤치호 일기』, 1894. 7. 24; “개전 초기에 중국이 준비되지 않았던 상황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일본은 이제 중국을 패배시킬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상실했다고들 믿고 있다.” 『윤치호 일기』, 1894. 9. 16.

를 가로채거나 전쟁에 개입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윤치호는 일본이 패배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대상은 청국이 아니기를 희망하였다. 일본이 전투에서 승리한다 하여도 국력의 열세로 전쟁에서는 패배할 것으로 보았고 청국이 승리하여 조선을 지배하게 되면 조선의 근대화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3국이 간섭하여 청과 일본 어느 국가도 조선지배에 나서지 못하기를 바란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국 상선(the Indochina Steam Navigation Company of London Co.) 까우성호(高陞吳, the S.S. Kwoshing)가 격침을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군함이 아닌 상선 그것도 영국 선적의 상선을 일본이 격침시켰으므로 영국이 청일전쟁에 개입할 빌미가 되기를 기대한 것이다. 이홍장도 이것을 노리고 병력 수송에 영국 상선을 이용하였고 선전포고도 미루고 있었다. 윤치호는 청국도 일본도 모두 원치 않았고 영국이 나서서 이들의 조선 지배 경쟁을 무마시키기를 바란 것으로 보인다. 청일전쟁 시기 문명국지배 하의 근대화 논의⁴⁹⁾는 영국의 전쟁 개입을 통해 청국과 일본의 조선 지배를 막으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까우성호 격침을 재빨리 수습하였고 전쟁은 본격화되었다. 아산과 평택 전투에서도 일본이 승리하였다. 당시 청군은 양무운동과 이홍장의 노력으로 군비 면에서 일본을 압도하였으나⁵⁰⁾ 전투에서는 참패하였다.

①“상하이의 영자 신문들은 헤네켄 선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승호가 일본군에 의해 격침되었고, 무장한 일본 해군들은 물에 빠져 발버둥치

49) 유영렬, 「개화지식인 윤치호의 러시아 인식: 그의 문명국 지배하의 개혁론과 관련하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102-107쪽

50) 조병한, 「海防 體制와 1870년대 李鴻章의 洋務運動」, 『東洋史學研究』 88, 동양사학회, 2004, 131-168쪽; 조세현, 「水師에서 海軍으로: 청말 양무운동 시기 함선과 대포의 해외구매를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 56,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12, 103-137쪽

는 청군들을 총격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반면 물에 빠진 청군들도 일본군을 향해 끝까지 총을 쏘았다고 전한다.” 『윤치호 일기』, 1894. 8. 7.

②“얼마 전 한 중국 진함이 일본 선박에 어뢰정을 쏘았다. 그런데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일본군이(중국 진함을 나포하여-연구자) 어뢰정을 열어 보니 어뢰에 폭약이 없었다. 이같이 무책임하고 게으른 중국에 반해 일본의 육군과 해군의 철저함과 효율성은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여 준다. 일본군의 조직과 기동력 기술적 완벽성 등 일본 진함에서 행하는 훌륭한 규율은 우방과 적국 모두의 찬사를 받고 있다.” 『윤치호 일기』, 1894. 8. 15.

위의 인용문 ①은 일본 군함의 활동을 평가한 것이다. 윤치호는 풍도해전을 목격한 헤네켄(Major von Hanneken)이 전하는 소식을 보고 일본군은 기동력과 작전 수행의 정확성을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거대한 상선을 격침하고 물에 빠진 수많은 청군에 대해 적절히 대응했음을 들은 것이다. 인용문②의 전반부에서도 윤치호는 일본군은 철저하고 효율적이며 기민하게 작전을 수행했다고 보았다.

반면 청군은 전쟁 초기부터 수많은 군인과 전쟁 물자를 상실하고 군함도 격침당했다. 초반부터 대패한 원인은 인용문 ②에서 보듯 어뢰에 장전도 하지 않고 쏘는 어리석은 전투 때문으로 보았다. 청군 지휘부의 준비 부족과 전투 자세의 부실함 즉 청군 지도부의 봉건적 나태함이 패배의 원인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인용문 ①에서 청국 병사들은 지휘관들과는 달리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일본군에게 항전했다는 기사를 빠뜨리지 않았다. 청군이 전쟁 초반 일본에 패배한 것은 병사들의 잘못이 아니라 지도부의 봉건적 무능 때문으로 보았다. 청군이 ‘양무운동’을 통해 근대적 함대는 보유했지만 청군 지도부의 봉건성이 근대적 군함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윤치호는 이후 전투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있었다. 평양전투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대파하였음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⁵¹⁾ 그 결과 일본은 한반도에서 청군을 몰아내고 조선과 청국의 연합전선도 파괴하였다.⁵²⁾ 이후 압록강 전투에서도 일본 전함 8척이 격침되거나 피격을 당했는데도 승리했다고 하였다. 윤치호는 양국 전함의 손실도 정확하게 헤아리고 있었다.⁵³⁾ 이후 벌어진 라오하 주변의 찌오리엔청(九連城) 전투에서도 일본은 승리하여 만주침공에도 안착하였다. 웨이하이웨이 전투를 통해 북양함대의 본거지도 압박하였고⁵⁴⁾ 결정적인 뤼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윤치호는 뤼순항의 가치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⁵⁵⁾

전쟁 초반 패배할 것이라던 국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청일전쟁을 지켜보던 윤치호는 일본의 군사력은 단순한 군비의 근대화를 넘어 전투력의 근대성을 획득해 동양의 맹주를 굴복시켰다고 보았다. 반면 청군은 전쟁의 후반에도 전투에 어

51) “지난 밤 ‘머큐리(Mercury)’지는 도쿄에서 보낸 전문을 토대로 중국군의 강력한 거점인 평양을 3개 군단으로 나누어 진격한 일본군은 9월 15일 밤(8월 16일) 2만의 청군을 거의 불구화시켰다고 보도하였다. 『윤치호 일기』, 1894. 9. 18; 2만 명의 중국 병사들 중 1,600명이 사살되고 나머지는 항복했다는 보도이다. 3명의 장수가 포로로 잡혔다. 『윤치호 일기』, 1894. 9. 19; “평양전투에서 일본 측 장교 11명, 사병 154명이 전사했다. 장교 30명과 사병 521명이 부상을 당했다. 중국 측에서는 2,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부상자 수는 엄청나다.” 『윤치호 일기』, 1894. 9. 22.

52) 유바다, 「청일전쟁기 朝-淸 항일 연합전선의 구축과 동학농민군」, 『동학학보』 51, 동학학회, 2019, 305-339쪽

53) “11척의 일본 전함과 14척의 중국 전함 간의 전투가 압록강 입구에서 벌어졌다. 전투는 4~5시간 지속되었다. 5척의 일본 전함이 가라앉고 불타버렸다. 3척의 일본 전함이 파손되었다.” 『윤치호 일기』, 1894. 9. 22.

54) 『윤치호 일기』, 1894. 9. 24; 1894. 10. 30.

55) “이달 23일 여순 항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중략- 중국의 지브롤터에 해당하는 여순 항의 함락으로 3,000만 냥의 가치에 달하는 해군기지를 일본에게 내어 주게 되었다. 적어도 2만 명의 병사가 30시간 동안 혹은 그 이상을 방어했던 이 웅장한 설비를 갖춘 기지가 함락됨으로써 모든 이들의 믿음을 허구로 만든 것 같다.” 『윤치호 일기』, 1894. 11. 27.

려움을 겪어 청군 지도부는 외국인으로 교체되었다. 윤치호는 청군 지도부가 바뀐 이유를 전쟁 과정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들었다.⁵⁶⁾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봉건성이 작전을 어렵게 만들어 패배했다고 본 것이다.

윤치호는 청군의 전쟁 수행과정을 보면서 근대 무기의 소유가 근대적 전투력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수입된 근대 군함으로 군비를 갖추더라도 조직과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적 근대화나 운영체제가 없다면 전쟁에서 패배한다고 보았다. 이런 면에서 청국의 근대화는 잘못된 것이며 조선이 청국의 근대화를 수용하는 것은 청국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으로 오히려 개혁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윤치호는 청국의 조선 지배를 극렬히 반대하였고 차라리 일본이 승리하기를 희망하였다.⁵⁷⁾ 그러나 윤치호가 진정으로 바란 것은 청일전쟁의 무효화였다.

나. 러일전쟁에 관한 이해

1) 일본이 강요한 협약에 대한 비판

러시아가 조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 철병과 조선 문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미국과 영국의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얻은⁵⁸⁾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1904년 2월 8일 중국 뤄순과 조선 제물포에서 동시에 러시아를 기습하였다. 수적 열세에 몰린 제물포의 러시아 함대는 전쟁 물자가 일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⁵⁹⁾ 스스로 침몰하였고, 뤄순에서는 러시아 전함 2척과

56) 『윤치호 일기』, 1894. 9. 24; 『윤치호 일기』, 1894. 11. 7.

57)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다면 적어도 당분간은 조선 문제에 대한 그 지긋지긋한 간섭을 접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승리할 경우 이미 짓밟힌 조선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윤치호 일기』, 1894. 7. 24.

58)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 침략』, 지식산업사, 2007, 318-322쪽.

59) 심현용, 「러일전쟁시기 러·일 양국군의 한반도 내 군사 활동」, 『아시아문화』 21,

순양함 1척이 격침당했다. 선제 타격으로 서해를 장악한 일본군은 중립화를 통해 일본의 침략을 회피하려던⁶⁰⁾ 조선 황궁을 1904년 2월 9일 점령하였다. 기습전을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압박하여 공수 동맹을 전제한 ‘한일의정서’(1904. 2. 23.)를 체결하고 전쟁 수행을 위한 주둔지와 전쟁 물자 확보에 열을 올렸다. 1904년 4월 하순 외부 관리로 임용된 윤치호는 ‘한일의정서’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한일의정서에 따르면**, 일본은 조선 정부에 내정 개선을 충고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조선인의 이익을 위해 조선에 훌륭한 정부를 도입한다는 생색나지 않는 과제를 책임지게 되었다. 지금 일본이 그 분야에서 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일본의 충고는 대부분 자국의 이익, 오직 그것만을 위한 것이었다. 즉 조선 전역의 전략상 중요한 지점을 위압적으로 점거하는 것이다. 황해도, 평안도, 충청도 연안의 어업권 확대 요구, 일본 신디케이트(syndicate)에게 현재 국가나 사적인 집단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모든 토지를 개간할 권리, 토지 위에 남아 있는 숲에서 벌채할 권리, 어디서든 물고기를 낚고 사냥을 할 권리를 이양하라고 지극 지극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한 입에 조선을 집어삼킬 권리를 이양하라고 조르는 것이다. 일본인의 충고는 또한 조병식(趙秉式), 박의병(朴義秉), 현영운, 권중석(權重奭), 박용화(朴鏞和) 같은 악당을 추천하고 후원하는 데서만 어느 정도 그 본질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하영 씨는 고쿠부(國分象太郎)가 홍순욱(洪淳旭)을 성진의 감리로 임명하라고 요청했다 한다. 이것 또한 충고다. 광범한 평양 지역의 집질을 벗긴 악당 홍순욱은 이 저주받은 나라에 제대로 된 황제가 있다면 교수형에 처할 인간이다. 이런 인간이 ‘충고’의 대상인 것이다. 또 일본인은 이미 충분히 넓은 역 부지에 남대문 외곽에 있는 2,000평이나 되는 소중한 구역을 침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허가받지 못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2005, 14-17쪽

60) 김연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전에 대한 지정학적 연구: 완충체계 이론을 중심으로」, 고대 박사학위논문, 2014, 257-258쪽.

한다면, 강제적으로 점거할 것이다. 이것 또한 ‘충고’다.” 『윤치호 일기』, 1904. 4. 26.

윤치호는 ‘한일의정서’에 규정한 조선 개혁에 대한 일본의 “충고”는 오직 러일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상 거점 확보와 어업권 확대, 토지 개간권, 삼림 채벌권 등 조선의 물자를 침탈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전쟁 수탈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 “교수형에 처할 인간”들을 조선의 관리로 임명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일본이 조선 내정개혁에 대한 “충고”라고 조소하였다.

윤치호는 이런 상황에도 개혁에 나서지 않는 관리들을 통렬하게 비난하였는데 대상에 아버지 윤용렬도 포함되어 있었다. 윤치호의 아버지에 대한 비판은 아래와 같다.

① “이용익(李容翊)에 반대해 조선의 폐해인 내장원(內藏院)을 폐지하고, 적절한 기반에서 군부(軍部)를 재조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소를 황제에게 올린 우리 아버님은 내장원과 군부 양쪽 부서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징표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알뜰게도 우리 아버님은 양쪽 부서에서 모두 직위를 갖고 계신다. 아버님은 내장원의 수장이지만 이용익처럼 황제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신경 쓰기 때문에 감히 폐지나 남용, 도입이나 개혁을 하지 못하신다. 직위에 대한 아버님의 열정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탐내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수치심을 버리신 것 같다.” 『윤치호 일기』, 1904. 4. 9.

② “군부대신 군무총장(軍務總長) 내장경(內藏卿) 등 세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그 직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심신이 쉴 겨를이 없다고, 잘못된 정부 때문에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고 등등 말이다. 하지만 마치 어린 아이가 장난감 세트를 갖고 즐거워하듯, 그는 분명히 세 종류의 관직 생활을 상당히 즐기고 있다. 관직,

돈, 그리고 젊은 첩이 그가 열정적인 사랑을 쏟아 붓는 대상이다. 이 세 가지가 주어진다면, 그 밖의 다른 것은 전혀 돌보지 않을 것이다.”

『윤치호 일기』, 1904. 6. 28.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침략자들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며 조선 침략을 버리고 있는데 조선은 아무런 개혁도 못하고 일본의 “충고”에 놀아나고 있었다. 윤치호는 아버지 윤웅렬이 군부대신, 원수부 군무총장, 내장원경을 지내고 있어⁶¹⁾ 개혁을 주도할 위치에 있고 개혁안을 제출했는데도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아버지가 고종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관직을 누리려고 수치심도 버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혁은 안하고 불평만 하면서 관직과 돈 그리고 첩을 즐기고 있다고까지 하였다. 윤치호는 조선 관리들의 표준 이상인 아버지마저 관직이나 탐하는 썩은 관리로 보고 개혁에 나서지 않는 것을 비판하였다.

안위가 가장 염려되는 고종은 일본의 혁혁한 승전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일본 연락선 격침에⁶²⁾ 기뻐하면서 점쟁이를 만나 러시아 승리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대궐 주위에 술을 얻어 묻거나 지도책이나 삶고 있다고 들었다.⁶³⁾ 일본은 전쟁을 시작하자 여러 척의 러시아 군함을 침몰시키고 마카로프 장군의 기함도 침몰시켜 러시아 해군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전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일본

61) 김영희, 『좌옹 윤치호선생 약전』, 좌옹 윤치호 문화사업위원회, 1999, 32쪽

62) 블라디보스톡 함대의 활약으로 일본군의 병력 철도엔진 무기 수송에 타격을 주어 1904년 여름 일본군 작전에 많은 차질을 주었다고 한다. 김현철, 「러·일 전쟁기 황해해전과 일본해군의 전략전술」, 『군사』 5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 264-265쪽.

63) “나는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황제가 일본 지도를 가마솥에서 삶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과 일본의 대의명분을 저주하는 특이한 방법이긴 하다. 황제는 어제 받은, 원산항에서 러시아의 어뢰선이 일본의 작은 연안 연락선인 오양환(五洋丸)을 격침시켰다는 보고 때문에 더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할 것이다. 제물포에서 전쟁이 발발해 끔찍한 연속 폭격이 피부어질 때, 훌륭한 군주는 점쟁이를 만나 느라 바빴다.” 『윤치호 일기』, 1904. 4. 26.

우편선을 격침했다고 흥분하는 고종을 목격하면서 절망하였다. 더구나 러시아 전과에 흥분하여 러시아를 위한 푸닥거리나 하고 불탄 궁궐 재건에 매달리는 고종을 보면서 윤치호는 일본의 침략을 방어할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는 중에도 일본의 침략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었다. 블라디보스톡 함대를 격파하고⁶⁴⁾ ‘황해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침략을 격상시키는 제1차 한일협약(1904. 8.)을 강요하였다.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충고”에서 “고문정치”로 만들어 직접적으로 조선 수탈을 자행하려는 것이었다. 윤치호는 외부대신 서리로 이 협약에 조인하게 되었다. 윤치호는 어려운 순간에 병가를 낸 외부대신 이하영을 비난하면서 외부대신 서리가 된 것에 불만을 표시하였다.⁶⁵⁾

“오후 4시에 하야시가 궁으로 왔다. -중략- 하야시는 협정서에 서명하겠다는 황제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하야시의 말이 끝나고 심상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만약 귀하가 ‘일본 정부의 일본 대표’라는 문구를 바꾼다면 협정서에 서명하는 데 반대하지 않겠소.” 물론 하야시는 즉시 그 문구를 바꾸는 데 찬성했다. 그래서 그 협정서 문제는 실제로 해결되었다. 심상훈은 하야시에게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 사안을 알리고, 내일 각료들의 자문을 구할 것이며, 내일 오후 4시에 내가 협정서에 서명하도록 과견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치호 일기』, 1904. 8. 22.

“오후 2시에 각료회의가 열렸다. 심상훈이 내게 각료회의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협정서에 서명을 하고 일본공사관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나는 각료들이 그 협정서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내 주장대로 진행되어 각료

64) 김현철, 앞의 논문, 2004, 264-265쪽.

65) 『윤치호 일기』, 1904. 8. 21.

들이 협정서를 검토하고 통과시켰다. 그런 다음 협정서에 서명을 하고 일본공사관에 보냈다.” 『윤치호 일기』, 1904. 8. 23.

위의 인용문들을 보면 윤치호는 이 협약의 의미를 조선 관료들에게 알리고 조금이라도 침략을 막아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조선 관리들은 고문정치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별로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심상훈은 조약 내용보다 조약 체결자의 신분을 문제 삼았다. 다음날 열린 각료회의도 내용 검토 없이 비준하려 하였다. 윤치호의 요구로 내용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다. 일사천리로 조약에 조인하고 일본공사관 보내고 말았다. 윤치호는 기울어져가는 조국의 형편을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절감하였다. 이후부터 윤치호는 전쟁의 진행과정과 결과에만 마음을 쓰고 있었다.

2) 전쟁 경과에 대한 관심과 염려

제물포해전이나 일본군의 궁궐 점령도 언급하지 않았던 윤치호가 러일전쟁의 전투과정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만주의 찌오리엔칭(九連城) 전투였다. 찌오리엔칭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은 축하연을 열어 조선 관리들을 초청하고 일본의 전승을 자랑하였다. 축하연에 참석한 윤치호는 자신의 감정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

“오늘 일본인들은 이달에 구련성(九連城)을 함락시켜 러시아를 상대로 거둔 결정적인 지상전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영광스러운 일본인들이 다! 일본인들은 동궐인 창덕궁에서 개최한 가든파티에 조선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그보다 좀 더 하위의 관리들을 초대했다. 창덕궁의 후원에 있는 ()에 가서 일본인들의 환성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곳을 보았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황제가 뇌보헌(賴寶軒) 같은 굴에서 지내기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을 방치해야 하다니 정말 슬픈

일이다. 황제의 실정(失政)이 나라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붕괴시키는 것은 더 슬픈 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슬픈 일은 황제에게서도, 비굴하고 부패한 신하에게서도, 아니면 끔찍하게 생기를 잃은 대중에게서도 조선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윤치호 일기』, 1904. 5. 6.

윤치호는 만주 공격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일본에 부러움과 질서를 금할 수 없었다. 윤치호가 참여한 일본군의 전승자축연은 그것을 확인시키는 자리였다. 윤치호는 일본군이 만주 전선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반면 조선 황제의 지위는 더욱 위태롭게 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고종은 아름다운 궁전을 버려둔 채 뇌보헌에서 불타버린 경운궁 재건에 몰두하고 있었다. 윤치호는 대책 없는 황제를 보면서 희망을 잃어버렸다.

한편 마카로프 장군 사후 뤼순 항에 갇힌 러시아함대는 1904년 6월 20일 블라디보스톡으로 귀환하라는 황제의 명령을 받고 6월 23일 이후부터 8월 10일까지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뤼순 항에 다시 갇히게 되었다.⁶⁶⁾ 뤼순 항에 갇힌 러시아군은 지원군을 기다리면서 소극적인 방어에 그쳤다. 여러 번의 공격에도 뤼순 항을 점령하지 못한 일본 해군은 육군의 뤼순 공격을 제안하였고(1904. 4. 12.) 뤼순 항 봉쇄를 선언하였다.(1904. 5. 26.) 발틱함대의 출항으로 시간이 급해진 일본군은 뤼순 점령을 위해 육로로 진격하였다.

만주 전투를 위해 제1군은 조선을 지나 평양에서 랴오둥 반도로, 4월 중순부터 2군은 랴오둥 반도에서 남산을 거쳐 뤼순에 근접한 다롄까지 진출하였다. 제3군은 7월 30일부터 뤼순 항 점령 작전에 돌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윤치호는 랴오양 전투를 언급하였다. 1904년 7월 말

66) 양욱, 「뤼순포위전과 만주 대접전」, 『국방저널』 509, 2016. 56-59쪽.

부터 뤼순 항을 공격했지만 러시아의 항만 포대를 극복할 수 없었던⁶⁷⁾ 일본은 육군 중심으로 뤼순항의 주변을 공격하여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강력한 저항과 제3군의 작전 결과로 뤼순 점령은 매우 어려웠다.⁶⁸⁾ 일본군은 활로를 찾기 위해 라오양 전투를 시작하였는데 거기서 승리한 것이다. 윤치호는 만주 전투의 중심인 센양과 라오양의 거리를 명기하여 라오양 전투의 중요성을 환기하였다. 일본군이 러시아의 요충지 센양(沈陽; 奉天)을 노리고 있으며 그 시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파악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투지 라오양이 조선인의 이주가 많음을 상기시켜 전투 과정에서 희생당했을 조선인들을 걱정하고 있었다.⁶⁹⁾ 그리고 전쟁에 지는 무기력한 러시아보다 전쟁에서 이기는 근대적 일본의 지배가 한국에 유리할 것으로 보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윤치호가 그 다음으로 거론 한 것은 뤼순 함락이었다. 전투에서 어려움을 겪던 일본은 제3군의 지휘부를 교체하고 작전을 전면 수정하여 1904년 11월 26일 제3차 공세를 시작하였다. 일본은 포격의 정확성을 살려 전력을 드러낸 뤼순 항 203고지 탈환에 성공하였다.(1904. 12. 5.) 이후 203고지를 이용해 뤼순 항을 공격함으로써 12월 8일에는 18척의 러시아 함대를 전멸시켰다.⁷⁰⁾ 함대를 모두 잃어버린 뤼순함대의 사령관 스테셀은 참모들과 협의도 없이 1905년 1월 1일 투항하였다. 윤치호는 일본의 뤼순 항 점령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67) 양옥, 윗글

68) 양옥, 윗글

69) “일본이 라오양(遼陽)을 점령했다! (라오닝성에 있는 도시로 선양에서 약 7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동베이(東北)지방에서는 한인이 가장 먼저 이주한 곳이다.) 어떤 경우든 선택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러시아인보다는 일본인이 전반적으로 조선인에게 평화와 번영을 안겨다 줄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윤치호 일기』, 1904. 9. 4.

70) 양옥, 앞글

“뤼순항이 그저께 항복했다. 일본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이란 말인가! 그렇게 거대한 사건들, 조선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거대한 사건들이 우리 조선과 라오둥 반도를 분리하는 좁은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 황제와 대신들은 밤낮으로 유치한 의식, 옹졸한 음모, 자신들의 지긋지긋한 권력 아래 있는 비참한 수천만 명의 피를 빨아먹는 일에 매달려 있다. 이런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지끈 거린다. 뤼순 항이 넘어왔기 때문에 일본은 선양에서 쿠로파트킨(1848~1925) 장군을 공격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조선 지배는 점점 더 확고해져가고 있다.” 『윤치호 일기』, 1905. 1. 3.

일본군은 뤼순항의 지리적 장점과 러시아의 방어망을 극복하고 뤼순을 점령하였다. 윤치호는 일본군의 뤼순 점령을 “거대한 사건”으로 보았다. 조선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투에서 일본은 승리하였다. 윤치호는 뤼순 점령 다음 남은 것은 만주의 지상군을 몰아내는 것인데 그 전투는 러시아 지상군의 마지막 보루인 센양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뤼순 점령을 마친 제3군도 이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일본 육군이 모두 센양 전투에 집중할 것으로 보였고 일본의 승리는 그만큼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조선 지배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고종황제와 관료들은 자신의 이익 추구에 매몰되어 어떤 준비도 없었다. 윤치호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다.

뤼순 전투가 정리되자 센양전투가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센양을 지키려 하였으나 일본의 포위망을 뚫을 수 없어 9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많은 전쟁 물자를 포기하고 퇴각하였다.⁷¹⁾ 일본이 만주 결전에서 승리하였다. 윤치호는 센양 전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71) 양욱, 윗글,

“1. 2주일 동안 힘겨운 전투를 끝낸 뒤 일본은 선양에서 러시아를 몰아냈소. 따라서 연이은 성공이 일본의 군대에 왕관을 씌우고 있다오. 그러는 동안 조선의 황제는 관직을 팔아넘기고, 장난감 같은 궁궐을 짓고, 일본에 반대해 러시아의 승리를 위해 산과 강의 정령들에게 기도하는 데 돈을 낭비하느라 바쁘다오.

2. 일본인은 이근택, 조병식, 이근상(李根湘), 박용화 등을 통해 궐内の 부패와 폭정을 부추기고 있소. 조병호(趙秉鎬)는 의정부 의정대신에 임명되었소. 조병호는 부패를 이유로 용감하게 조병식을 해임했소. 일본인들은 즉시 황제를 움직여 조병호를 해임하고 조병식을 그의 자리에 임명하게 만들었소! 따라서 일본인은 자신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정직한 인물들을 통한 조선의 안녕이 아니라 부패한 악당들을 통한 조선의 강탈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오.

3. 일본인은 외국에 나가 있는 조선 공사들을 복귀시키고 우체사(郵便司)의 관리를 일본 당국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오.” 『윤치호 일기』, 1905. 3. 21.

위의 인용문을 보면 일본은 힘겹지만 만주에서 완전히 승리했다고 보았다. 전력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고비마다 일본은 승리하였으며 선양 전투의 승리로 일본의 승리는 확실해졌다고 보았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수탈을 숨기지 않았다. 이미 조선 외교관들의 소환을 요구하고 통신 관리권도 일본이 차지하려 하였다. 수교국들의 외교관들도 떠나고 있었다. 나아가 조선 주둔군 대장을 황제가 맞아야 했으며⁷²⁾ 러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난 일본인들은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있었다.⁷³⁾ 일본은 승패가 완전히 갈리지 않은

72) 『윤치호 일기』, 1904. 10. 13.

73) “러시아인들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일본 민간인과 군인들은 전혀 숨길 생각도 없이 마개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인이 가는 곳은 어디서나 칼싸움 방화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중략- “일본인의 야비함과 일본인의 음모, 그리고 이권을 추구하는 정책은 아닌 척 위장하지만 그럼에도 확고부동하게 반일 태도를 취하도록 수많은 조선인을 몰아세우고 있다.” 『윤치호 일기』, 1904. 10. 20.

상황에서도 이미 승리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황제와 관료들은 매관매직에 몰두하며, 궁궐 짓기에 재정을 쏟아 붓고, 패배하는 러시아를 위해 무당을 동원하는 등 쓸 데 없는 일에 매몰되어 있었다. 일본의 조선 지배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었다.

남은 것은 러시아를 떠나 동아시아로 향하던 발틱함대(제2 태평양함대)와 일본 해군의 결전뿐이었다. 윤치호는 발틱 함대가 아프리카를 돌아 타이완 주변에 이르렀음을 주시하였다. 행여 러시아가 이겨 조선의 상황이 변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윤치호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⁷⁴⁾ 윤치호는 동해해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5월 27일과 28일에 발틱함대가 일본 해군에게 완전히 파괴되었소. 이 사건은 일본에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군사작전이 되었다오! 나는 조선인으로서 일본의 연속된 성공을 기뻐할 특별한 이유가 없소. 일본이 거두는 승리는 모두 조선의 독립이라는 관에 박히는 못이러오. 일본인이 조선인을 일본의 지배라는 수레바퀴에 단단히 사슬로 묶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정말로 야비하오. 하지만 황인종의 일원으로서 조선, 또는 나는 일본의 영광스러운 성공에 자부심을 느낀다오. 일본은 우리 황인종의 명예를 높이고 있소. 이제부터는 허풍쟁이 미국인도, 오만한 영국인도, 허영심 많은 프랑스인도 황인종이 큰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오. 중국인이 산업이나 상업 면에서 다른 인종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듯이, 일본인은 자존심 강한 서구가 극동의 육군과 해군의 비범함을 인정하게끔 만들었소.” 『윤치호 일기』, 1905. 6. 2.

윤치호는 동해해전의 승리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고 결론지었고 조선은 일본의 지배사슬에 묶이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윤치호는 동양의 약체 국가 일본이 서구의 강국인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승리했기에 자랑스러운 것이라 하면서 서구 열강들의

74) 『윤치호 일기』, 1905. 4. 20.

단점을 비판하였다. 윤치호는 일본의 군사적 승리를 논하면서 중국의 상업적 우월도 동일한 수준에서 논하였다. 동양의 우월성을 일본과 중국을 통해 강변하고 있었다. 위 인용문의 전체적 의미는 일본의 승리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다. 황인종의 승리 속에 조선을 포함시키려는 욕구가 숨겨진 것이다. 중국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일본이 서구에 승리할 만큼 군사적으로 성공하였다면 조선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문제는 조선의 근대화를 주도할 국왕과 관리들이 부패하여 일본의 침략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배를 받게 된 것을 참담해한 것이다.

러일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윤치호는 전투의 고비마다 일본의 승리에 주목하였고 그때마다 조선의 운명에 노심초사하면서 대책 없는 황제와 관료들을 비판하였다. 윤치호는 관료로서의 개혁에 최선을 다하려 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 결과인 포츠머스 강화조약은 일본의 조선 “보호국화”를 기정사실로 만들었고 제국주의 열강들도 이를 인정하였다. 윤치호는 일본 침략 아래 조선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외부대신 승진을 사양하고 퇴직하였다.

5. 맺음말

기존의 연구들은 윤치호의 개화사상을 독립을 유보한 문명국 지배하의 근대화론으로 보고 있으며, 일제 말 윤치호가 친일파로 전향한 것도 그의 사상적 귀결이라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윤치호는 근대화를 이루려면 국가의 독립이 필요하고 독립하려면 외세의 침입을 막아야하고 외세의 침략을 막으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군사력의 강화를 개혁의 제1과제로

생각한 윤치호는 이를 위해 제도의 개혁과 산업화 즉 근대화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윤치호가 구상한 근대화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독립을 위한 것이었다.

조선의 군사개혁은 국왕의 안위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윤치호는 조선이 군사력 강화에 실패한 이유를 3가지로 보았다. 먼저 조선왕조의 유교적 문치주의가 상무정신을 말살하여 군대양성의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보았다. 다음은 근대적 군사개혁을 외세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국제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지원세력이 변하면서 제도가 안착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군대 개혁이 일관성이 없어 인적 물적 자원만 소비하고 군사력 강화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세와 연관된 조직들이 잔존하여 조직적 통합도 방해했다고 보았다. 이런 가운데 관료들의 부패와 맞물려 군인들의 기강도 해이해져 근대적 군사개혁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군대가 개혁을 빙자하여 새로운 부패와 수탈의 통로를 첨가했다고 보았다. 결국 조선은 근대적 군대양성에 실패하여 국제적으로 벨기에형 중립화(=보호국화)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보았다.

반면 일본은 무사들이 사회를 주도하여 상무정신이 사회적으로 존중되었다. 그 결과 각 지역 번주들이 일찍부터 서구 열강의 군사제도를 수용하고 실험하여 중국에는 일본적 군사제도를 만들어냈다고 보았다. 세계 최고의 영국 해군과 독일 육군의 제도를 받아들였고 근대적 무기와 작전으로 무장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청군은 양무운동으로 근대적 군사 장비는 소유하였으나 봉건성을 탈피하지 못해 청일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보았다. 윤치호는 근대적 군사장비의 수입이 군대의 근대화로 이어지려면 또 다른 근대화 즉 군사문화의 근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윤치호

는 러일전쟁에 대해서도 군사문화의 근대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전력의 차이를 맹신한 러시아는 지리적 약점과 보급선의 불완전함을 내세워 전투에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일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용하였다. 일본은 러시아가 허용한 공간과 시간을 적극 이용하는 근대적 합리성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벨기에형 중립화라는 조선에 대한 국제여론을 이용해 조선에 제2차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하였다. 윤치호는 제2차 한일협약이 조인되는 것을 보고 “보호국” 관직을 사양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개혁을 찾아 나섰다.

(원고투고일 : 2020. 7. 6, 심사수정일 : 2020. 8. 14, 게재확정일 : 2020. 8. 25.)

주제어 : 개화기, 윤치호, 군사문제, 조선의 군사개혁, 일본의 군사개혁, 청일전쟁, 러일전쟁, 휘순전투, 센양(봉천)전투

<참고문헌>

- 윤치호, 『육역 윤치호 일기』 1883-190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uci.or.kr//G500:1310377-02012038759139>
- 김영희, 『좌옹윤치호선생약전』, 좌옹윤치호문화사업위원회, 1999.
- 강명숙, 「윤치호와 남감리교 선교-개성지역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24 (2016. 12), 135-172, 한국사학회,
<http://uci.or.kr//G704-001261.2016..124.0011>
- 김기주, 「개항기 조선정부의 대일유학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29 (2004. 여름), 113-137, 한국근현대사학회,
<http://uci.or.kr//G704-001258.2004..29.008>
- 김도형, 「한말 일제하 기독교 지식인 윤치호(1865~1945)의 ‘文明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김연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전에 대한 지정학적 연구: 원충체계 이론을 중심으로」, 고대 박사학위논문, 2014,
<http://uci.or.kr//G901:A-0005788893>
- 김현철, 「박영효의 정치개혁사상」, 『軍史』 34(1997. 6.), 237-273, 국방부군사연구소
<http://uci.or.kr//G901:A-0001158114@N2M>
- 김현철, 「러일전쟁기 黃海海戰과 일본 해군의 전략 전술」, 『軍史』 51, (2004. 4). 251-281,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http://uci.or.kr//G901:A-0001887042@N2M>
- 박인화, 「구한말 독일 관비 유학생에 관한 고찰」, 『독우회보』 24(1983. 3), 87-113, 이대사회생활과,
<http://uci.or.kr//G901:A-0000521225>
- 박희호, 「구한말 한반도 중립화론」,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8.
- 서영희,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 한반도에서 벌어진 국제전을 바라보는 한국 학계의 시각」, 『軍史』 100 (2016. 9), 119-146,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http://dx.doi.org/10.29212/mh.2016..100.119>

- 심현용,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관계사: 영토확장·청일전쟁·러일전쟁을 중심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http://uci.or.kr//G500:1310377-00000000219159>
- 심현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http://uci.or.kr//G500:1310377-00000000243386>
- 심현용, 「러일전쟁시기 러·일 양국군의 한반도 내 군사 활동」, 『아시아문화』 21(2005. 8.), 9-34,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http://uci.or.kr//G300-jX1092704.vn21p9>
- 양 옥, 「동북아의 운명을 결정지은 쓰시마 해전. 3-뤼순포위전과 만주의 대 접전」, 『국방저널』 통권 509(2016. 5.), 56-59, 국방홍보원,
- 유비다, 「청일전쟁기 朝-淸 항일 연합전선의 구축과 동학농민군」, 『동학학보』 51 (2019. 6.), 305-339, 동학학회,
<http://uci.or.kr//I410-ECN-0101-2019-100-001026635>
- 유영렬, 『개화기 윤치호 연구』, 고대 박사, 1985.
<http://uci.or.kr//G901:A-0004414201>
- 유영렬, 「개화지식인 윤치호의 러시아 인식 : 그의 문명국 지배하의 개혁론과 관련하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1(2004. 12), (94-12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http://uci.or.kr//G704-000827.2004.41..008>
- 유영익, 「갑오-을미년간(1894-1895) 박영효의 개혁활동」, 『국사관논총』 36 (1992. 10.), 1-30, 국사편찬위원회
- 유영익, 박영재, 조재근, 『한국사-청일전쟁과 갑오개혁』, 국사편찬위원회, 2000.
<http://uci.or.kr//G500:1310377-00000000191439>
- 이광린, 「윤치호의 일본유학」, 『동방학지』 59, (1988. 6), 171-191, 연대국학연구원,
<http://uci.or.kr//G901:A-0002379942>

조병한, 『海防 體制와 1870년대 李鴻章의 洋務運動』, 『東洋史學研究』 88, (2004. 8), 131-168, 동양사학회,

<http://uci.or.kr//G704-000250.2004..88.001>

조세현, 『水師에서 海軍으로 : 청말 양무운동 시기 함선과 대포의 해외구매를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 56(2012. 12), 103-137,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http://uci.or.kr//G704-001440.2012..56.006>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 침략』, 지식산업사, 2007,

<http://uci.or.kr//G706+KPEF01-F.organRecomBookInfo.0000017662>

한승훈, 『19세기 후반 조선의 대영정책연구(1874-1895); 조선의 균세정책과 영국의 간섭정책의 관계 점검과 균열』, 고대 박사학위논문, 2015,

(Abstract)

Yun Chi-ho's Understandings about Military Affairs during the period of enlightenment for Joseon Dynasty

Kang, Myung-sook

When we studied about the questionable figure Yun Chi-ho who was social reformer in late Joseon dynasty, it is said that Yun had been more concerned about the modernization than the independence of the country. Therefore his thoughts had been considered as pro-japanese tendency from the start. Finally Yun became one of the pro-japanese collaborators in 1938, when he was 74 years old, related the 'Hung-up Club Accident'.

However, Yun insisted that modernization could not promote without preventing the aggressions of imperial countries. His career background was related deeply to military field, thanks to his family, especially his father's assignments, which were the officer of Bulgigun(kind of Government military forces) and minister of National Defence. As Yun stressed on the military power of the country so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independence and modernization of the country.

Chosun Dynasty had promoted the military reformations for strengthening the king's security above all. But the reformations were not successful. There were three major reasons for that as below

Firstly, the military fields had been neglected for a long time as compared with the civilian service field by the confucian principle in Joseon dynasty. Therefore there had been not good military experts due to the social trends and thoughts in Joseon. Secondly, the surrounding foreign countries such as Japan, Quing, and America initiated the military reformations. The influence of these countries on the military systems had been frequently changed, therefore the reformations of Joseon would stop at those times. As a result, troops could not get the modern power. Thirdly, soldiers were

indisciplined and corrupt to make money. For those reasons, the military reformations of Joseon were failure. The international opinion about Korea was belgian neutrality in order to keep the korean independence.

On the contrary, the military reformation of Japan had been successful. Japanese society had respected martialism traditionally, so it was natural for Japan to adopt western military systems flexibly from early times. Therefore Japan had strong modern troops.

Japan got the victory in Sino-Japanese War and reformed Korea on the face of it. Actually, Japan invaded and plundered the Korean peninsula. Korea wanted to use Russian powers to eliminate the japanese control. Russia and Japan competed bitterly in Korea. Finally, Japan won in Russo-Japanese War. Japan should dominate over the Korea. During the two wars, Yun would make comparisons and analyses between China and Japan, Russia and Japan in the military powers and fighting efficiencies. Yun watched and appreciated the battles and war situations in crucial times. Yun concluded that Japan should dominate over Korea. He gave up the official public services and looked for other reformations with people.

Keywords : Yun Chi-ho, the period of enlightenment, Military affairs, Korean Military reformation, Japanese Military reformation, the Sino-Japanes War, the Russo-Japanese War, the Battle in Lu-shun, the Battle in Shenyang